

진행순서

- * 인사말
- * 성고문투쟁 경과보고
- * 기념패 증정
- * 기념 연설 — 권 인숙
- * 격려의 말씀
- * 시 낭송
- * 실천방안 토론 및 결의

-
- 성고문 사주하는 군부독재 타도하자!
-
- 성고문 형사 문 귀동을 즉각 구속하라!
-
- 법원은 변호인단의 재정신청 받아들여
문 귀동을 구속하라!
-

권 인숙양 석방환영 및 '86 여성운동 인물 선정 기념식

- 일시 : 1987년 9월 14일(월) 오후 6시
- 장소 : 기독교회관 강당(종로 5가)
- 주최 : 한국여성단체연합(738-2883)

초청의 말씀

저희 한국여성단체연합은 지난 3월 8일에 열렸던 제3회 한국여성대회에서 부천시 성고문 사건의 진실을 놀라운 도덕적 용기로 폭로하면서 군부독재정권의 폭력성에 항거하였던 권 인숙양을 「'86 여성운동 인물」로 선정하였습니다.

권 인숙양을 「여성운동의 인물」로 선정한 진정한 이유는, 그녀의 투쟁이 가부장적 문화와 군부독재의 이중적 억압 하에서 고통받고 있는 우리 여성들에게 힘찬 용기와 운동의 방향을 제시한 데 있습니다. 권양의 사건이 처음 우리에게 알려졌을 때, 그녀의 이름은 슬픔과 절망의 대명사였으며, 피해자로서의 여성운명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러나 성고문 재판이 진행되면서, 수의(囚衣)를 입고 포승줄에 묶여 나온 피고인석의 가녀린 이 여성에 의해, 검찰의 거짓됨과 사법부의 나약함이, 그리고 마침내 군부독재의 비도덕성과 폭력성이 발가벗겨져 국민의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권 인숙은 성고문의 피해자로서의 「권양」이 아니라, 여성의 성을 짓밟는 가부장적 문화와 그것을 고문으로 사용한 군부독재의 폭력을 이겨낸 민주투사, 승리의 여성이 되었습니다.

그녀의 투쟁과 승리는 피해의식에 젖어있던 이천만 여성의 가슴에 절망대신 용기를, 굴종 대신 항거의 정신을 일깨워 주었으

며, 그녀가 지핀 작은 불씨가 타올라 87년 6월 우리 여성들은 전국민적인 반독재투쟁의 대열에 참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위대한 6월 투쟁의 결과, 무고하게 1년 6개월을 선고 받았던 권 인숙양이 석방되어 오늘 우리와 자리를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성고문을 자행했던 문 귀동이 구속되기는 커녕, 말단 경찰관에서 구두공장 사장으로 출세하여 거리낌없는 사회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진실을 쟁취하고자 몸부림쳤던 권양과 우리들의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 다. 문 귀동이 구속되지 않고 처벌되지 않고 있다는 이 사실은, 문 귀동으로 상징되는 모든 죄악의 뿌리가 지속되고 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러한 사실을 묵인하고 이 싸움을 여기서 중단한다면, 우리는 또 다시 저 가증스러운 성고문의 도전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다소 늦게나마 권양의 석방을 환영하고, 함께 나누지 못했던 「'86 여성운동 인물」 선정 기념식을 마련하오니,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많이 참석해 주시어, 아직 끝나지 않은 성고문 싸움에 대한 우리의 결의를 다지고 실천방안을 함께 모색해 보기로 합시다.

1987. 9. 8.

한국여성단체연합

회 장 이 우 정